

부산시, 지자체 최초 '육아 정책 브랜드' 특허청 상표 등록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 저출생 극복, 돌봄·교육혁신 박차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 확대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의 대표 육아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 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탄생했다.

시는 출생부터 책임 돌봄, 특화된 양육·돌봄·교육 정책을 모두 담은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취지와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업무 표장과 상



부산시 대표 육아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 특허청 상표 등록증. /부산시

표 등록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도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

산형 돌봄 및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그간 추진 성과를 반영해 올해도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 부담 제로(0)'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을 기존 3~5세에서 2세 현장 학습비까지 확대해 앞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더 내실 있게 확대해 추진한다.

행복하고 배려받는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핑크 문화 데이'와 임신부·영유아가

족 배려 주차 구역 민간 기관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임신부·영유아우대 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긍정적인 출산·육아 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조성 확대 ▲'독박 육아 탈출! 육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동네 사회 가치 경영(ESG) 센터와 연계한 '애지중지 스페이스'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과정을 공유·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세대 화합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당신처럼 애지중지 브랜드의 상표와 업무 표장 등록은 출생부터 육아와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모아 혁신적으로 브랜드화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도모

대구시가 정부의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은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융합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체험 서비스 발굴을 비롯해 블록체인 융복합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전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3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기장군

SNS 군 서포터즈 발대식

기장군은 군청에서 '2025년 기장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 서포터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군 주요 정책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 ▲숨어 있는 지역 이야기 ▲지역 문화 자원 발굴 등을 취재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군 공식 SNS 채널에 공유하게 된다.

정중복 기장군수는 "현재 SNS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홍보와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서포터즈 한 분 한 분이 기장군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장(부산)=이도석 기자

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87억 투입

경남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재해대책비 292억원 포함 방제 사업비 587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과 합동으로 피해목 제거, 중요지역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하고, 집단 피해지는 수종 전환 확대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4일 오후 창녕군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에서 산림청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창원(경남)=이도석 기자

포항시, 농업·농촌예산 1300억 돌파

지난해 1187억 대비 15.6% 늘어 경영 안정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수출 300억 달성 위해 마케팅 강화

포항시는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포항시의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1373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187억 원 대비 15.6% 증액된 규모다. 시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올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역 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 ▲식량안보 및 저탄소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촌지역 문화·복지시설 ▲농식품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등 정주 여건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농업인들에게 기본형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비롯해 농업경영안

정용자금, 벼 재배 농가 완효성비료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저탄소 및 친환경 영농 지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호미곶면에 23억 원 규모의 경관치유농업을 확대 조성해 생태관광 중심지로 연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축산분야에서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테마공원인 '포항펫월드'를 개장해 반려동물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30년 농산물 수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해 포항시는 스마트AI 산지 유통시설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포항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완도~제주 오가는 '골드 스텔라호' 취항

운항 시간 선택 폭 넓어져

완도군은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가 1월 15일부터 취항한다고 밝혔다.

골드 스텔라호는 매일 오전 9시 20분에 완도에서 출항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시에 출항, 1일 1회 완도에서 제주를 왕복 운행한다.

골드 스텔라호는 완도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최대 948명, 승용차 343대를 수용한다.

현재 완도~제주 항로는 한일고속의 실버 클라우드호가 일 2회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 스텔라호 취항으로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새벽, 오전, 오후에 생김으로써 운항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골드 스텔라호는 특실, 마루·침대·캡슐 객실, 펫 룸 등 승객의 편의를 고



완도~제주 항로를 오갈 '골드 스텔라호' /완도군

려한 객실과 휴식 공간, 오락실, 키즈 룸 등 부대시설도 다양하게 갖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전 시간에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없어 여행객들이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번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사 모집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모집

경상북도는 지역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미

만 등 필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수 청년기업 인증' 기업 선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대상 1차 정량평가(재무역량, 투자유치실적, 매출 및 고용창출 등), 2차 현장평가(기업역량, 아이템 사업성, 기업 운영 성과 등), 3차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10개 기업은 청년기업 인증서 교부와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기업 멘토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대·중견기업 및 업 지원으로 스케일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증가율 도내 '1위'

지난해 모금액 4.2억... 전년비 199%↑

지난해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증가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4억 2516만 8400 원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총 3579건으로, 이 가운데 3259건은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부 금액인 10만원 기부자였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38건이었으며 10만원 미만은 22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445건, 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과 경기도 순이었다.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증가율은 지자체 상호 기부 추진과 유관 기관 협력, 답례품 추가 선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상호 기부에는 ▲전남 영암군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등이 참여해 2500만원, 250만원, 7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또 산청군농협지부와 산청군농협이 타 농협 간 적극적인 상호 기부를 추진했으며 산청소방서, 산청교육지원청, 산청우체국, 경남은행 산청지점 등 유관 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산청(경남)=이도석 기자